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마태복음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마 5:1-9)

The Blessing of the Peacemakers (Matt. 5:1-9)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평화이지만, 현실은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폭력과 상처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원합니다. 일터의 평화를 원합니다. 또한 사회와 국가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지만 평화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박노철 목사

Though what we really want is peace, there are quarrels, jealousy, grudges, complaints, violations, and injury in reality. What we want is peace in our homes, and peace at our workplace. We want also the peace of society and the nation. However, it seems that peace is moving further away from us, while we try keeping the peace in various ways.

Nevertheless, Jesus Christ says a surprising word toward us who have despair and regrettable feelings in the following verse.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v. 9).

The peace refers to “eilene” in Greek and “shalom” in Hebrew. The Israelite people longed for peace. So they say “Shalom!” when they greet each other. The reason why they say shalom when they greet is because

God in the Bible is the God of shalom, the God of peace.

So, how can we be the peacemakers?

그런데 평화에 대한 절망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9절).

화평을 헬라어로 “에이레네”(eilene), 히브리어로는 “shalom”(shalom)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shalom”이라고 인사합니다. 유대 민족이 “shalom”이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shalom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1.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19).

하나님은 평화의 주체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모든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2.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

성경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3.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단어는 단순한 자녀를 뜻하는 “tekna나 tekna”가 아니고 왕의 자녀의 존엄과 영예와 권위를 의미하는 “huios나 huios”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며, 영광중에 계시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됨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We must be reconciled to God for peace

“That God was reconciling the world Himself in Christ, not counting men’s sins against them. And he has committed to us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II Corinthians 5:19).

God is the main body of peace and the king of peace. All peace comes from God. Therefore, if we are not reconciled to God, we can never enjoy true and eternal peace. The way we make peace with God is through coming to God in reliance on Jesus Christ’s contribution of the cross. We do not enjoy truthful peace until we put the load of our sin down.

2. We must recover our relations with our neighbors

“Therefore, if you are offering your gift at the altar and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leave your gift there in front of the altar. First go and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then come and offer your gift” (Matt. 5:23-24).

The Bible says that we must be reconciled to our neighbor as well as to God, and only so, can we become truthful peacemakers. As Jesus was crucified on the cross in order to give us peace, so we must sacrifice to be reconciled to our neighbor to achieve peace.

3. The blessing of the peacemakers

In the text the blessing of the peacemakers will be called sons of God. Here, “sons” do not simply mean children “tekna” but “huios” that is the majesty, honor, and prestige of the King’s children.

God is the omniscient and omnipotent creator who created all things in the universe with His Word. God, who is omnipresent, and present in glory, is the Lord God of hosts. The peacemakers are simply God’s children.

My beloved Christians!

By becoming the peacemakers, I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enjoy the blessings of being God’s children to your heart’s content.

2011 사명자 대회 특별새벽기도회

- 시편 묵상과 함께 깊어지는 영성 -

11. 21(월)~26(토) 새벽 5시, 강사 : 박노철 목사

11월 21일(월)부터 26일(토)까지 사명자 대회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진행된다. 기도제목과 개인의 기도제목에 풍성한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에는 "시편 묵상과 함께 깊어지는 영성"이란 주제로 박노철 목사의 말씀을 받게 된다. 또한 11월 27일(주)와 12월 4일(주)에 있을 홈커밍 데이(Home Coming Day) 행사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관계로 금주 금요일기도회는 개인기도로 대신한다.

박노철 담임목사 위임감사예배

11.27(주), 오후 5시 - 본당에서

『교회설립 20주년기념주일 · 추수감사절』

11.27(주), 주일 1·2·3부 예배시 성찬식 거행

우리 교회는 11월27일(주)을 교회설립20주년기념 위임예배를 드린다. 주일 및 추수감사절로 함께 지킨다. 주일예배시간에는 성찬식을 갖고, 오후 5시 본당에서 교회설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박노철 목사 담임목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교회설립20주년기념, 칸타타 '열렸다! 하늘문이' 전곡으로

제4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종강

4학기 수료자 22명 · 10years round table members 3명

2011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및 4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종강하였다. Table Members이다.

2011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은 317명이 10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였으며, 제4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3명의 10Years Round Table Members와 4학기 수료자 22명을 배출하였다.

- 4학기 수료자 : 권익임 김경수 김미옥 김봉숙 김영애 김위남 김인순 김정숙 박명순 박미애 서문수 오영환 유인자 이성일 이형숙 이혜숙 정예실 최수연 함옥란 김정기 서운덕 이종욱
- 10years round table members : 김광길 목사(망우교회) 김정희 전도사(벨벳순복음교회) 박정순 전도사(소양교회)

다음은 4학기 수료자 명단과 10Years Round

오정수 장로 전장연 수석부회장 당선

우리 교회 오정수 장로는 지난 11월 17일(목) 기독교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제40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한영득 장로와 경합하여 수석부회장에 당선되었다. 오 장로는 2012년도에 전장연 수석부회장직을, 2013년도에는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11월 성경통독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 : (10교구) 여현진 권사 · 5독 : (2교구) 윤만현 권사
- 4독 : (10교구) 이점숙 권사
- 3독 : (2교구) 방계운 권사 (11교구) 국산옥 권사(12교구) 이민화 권사 (16교구) 장양일 집사
- 2독 : (2교구) 안창희 집사 정봉금 권사 (4교구) 민정이 권사 (10교구) 여현진 권사 (11교구) 이은희 권사 (12교구) 박명석 권사 (14교구) 안준홍 집사
- 1독 : (1교구) 양춘경 집사 서경애 권사 (3교구) 박경희 권사 이혜순 권사 (6교구) 김윤지 선생 (7교구) 김보경 집사 (8교구) 임명숙 집사 (9교구) 김진숙 권사 (10교구) 김재근 집사 (11교구) 박화실 집사 육순자 권사 이경희2 권사 (12교구) 김예환 권사 이인선 권사(15교구) 김경희10 집사 (16교구) 임송자 권사

제5회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11월 20일(주) 오후 3시, 101호

오늘 우리 교회 사랑부(부장: 이계홍 집사)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음악회를 갖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악기 연주와 찬양을 드리며 전도의 장으로 열리는 사랑부 천사들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음악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29]

(문 26) 헷 족속이 족장시대에 팔레스타인 남부에 살았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답) : 창23장에 아브라함 때에 헷 족속이 헤브론에서 살았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5-6세기 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보고할 때 가나안의 언덕 편에 헷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민 13:29)

그러나 많은 현대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은 사라가 막벨라 굴에 장례될 때 즉, 주전 2050년경에 팔레스타인에 헷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역사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헷 족속의 중심부는 소아시아 동쪽에 있었고 그들의 수도는 Hattusas(Boghazkoy)이고 그들은 1600년경 바벨론의 Mursilis(1620-1590 B.C.) 통치 때 근동지방에 처음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헷 족속은 수리아 왕국의 영토로 점령되었고 애굽의 Ramses 2세 때에 신왕조 헷 제국의 2대 강국 사이에서 불침략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K.C. Seele, When Egypt Ruled the Ea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42, p251)

근자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카파도기아의 Kultepe(고대 Kanesh)에서 1950과 1850 B.C. 사이에 앗시리아인 상인의 비문이 발표되었는데 거기에서 헷 족속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유럽-아나톨리안 이주민들이 도착하기 전 비인도-유럽 배경을 가진 헷 족속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스스로 Hatti라는 이름을 가진 침략자들에 의해 2300-2000 B.C.에 점령되었고 그들 사이에 그리고 선조들과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지방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남쪽 지방까지도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에 Hatti와 Hitti가 동일한 자음을 가진 것이었으나 구전에 의해 모음이 달라진 것인데 E. Fother에 의하면 헷 족속이 애굽 영토로 들어와 대강 B.C. 1330에 Murgillis 왕에 의해 Hittite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헷 족속은 인도-유럽인들과 많이 닮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소아시아에서 온 이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23장에 나오는 소할과 에브론의 이름은 이미 헤브론에 거한 헷 족속들이 문화적으로 셈 족과 동화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헷 족속은 후일 이스라엘 역사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9:1-2, 11:3, 삼하11:11, 왕상11:1, 왕하 7:6) 그들은 가나안의 선주민이 되었고 혹은 가나안인(삿1:10) 혹은 아모리인(수10:5-6)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가나안 땅을 '헷 족속의 온 땅'(수1:4)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음주 계속)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음악예배- 열렸다! 하늘문이

독수리 날개짐 같이

오광환 장로 (힐렐루야 찬양대부장)



교회설립 20주년, 성년이 된 서울교회가 추수감사절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제2대 박노철 목사님 위임을 축하하며 독수리 날개짐 같이 힘찬 비상을 소원하여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 잃은 양떼들이 광야 길을 찾아 헤매며 울부짖을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영문을 떠났던 목자가 다시 찾아와 지명하여 부른 양떼들을 영광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열렸다! 하늘문이!" 칸타타로 위로와 소망과 평화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주일 - 열렸다! 하늘문이

칸타타 "열렸다! 하늘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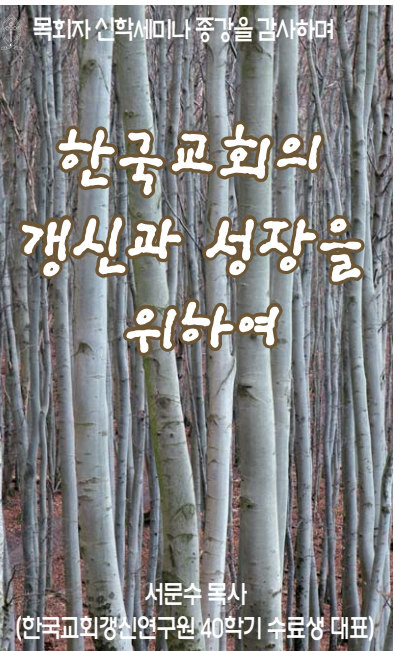
박정선 장로 (찬양위원장)



11년전인 1999년에 내가 미국 필라델피아의 템플 음악대학에 초빙교수가 있을 때입니다. 서울의 이종윤 목사님으로부터 2000년 대지동의 새 예배당으로 입당할 예정인바, 새 예배당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전체 8악장으로 구성된 성시(聖詩) "열렸다! 하늘 문이"를 보내 오셨습니다. 성시를 읽어본 저는 벽찬 마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또한 앞섰습니다. 심오하며 주옥같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 아름다운 성시를 부족한 내가 과연 적절한 음악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방에서 성시를 읽고 난 후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제게 지혜와 능력주시고 음악적 영감을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성시의 깊고도 오묘한 뜻이 가리워 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제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하루에도 수십 번 "열렸다! 하늘 문이"를 한 마디 한 마디 작곡해 나갈 때 마다 기도하며 쓰고 또 기도하며 쓰곤 하였습니다. 악상이 안 떠오르거나 진부해 지려고 할 때에는 눈물로 기도하시면 장로님, 권

사님들의 얼굴을 떠올리었고 논현동 비좁은 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드리던 음성을 생각하기도 하였으며 반포동교회의 옥상에서 목회자 세미나에 오실 오륙 백 명의 목사님들 점심을 위해 새벽부터 김밥을 준비하시던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영감을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곡을 써나가다가 혼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쓸 때도 있었고 성시 구절 구절이 서울교회의 역사이고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눈물의 고백이기에 더욱 애절한 마음으로 곡을 써 나갔습니다. "내 사랑 서울 교회여..." 하는 구절을 작곡 할 때에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곡을 써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네, 눈물로 드렸네, 기도로 쌓았네..."에서는 쓰던 연필을 놓고서 이종윤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벽찬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성년이 된 서울교회 설립20주년을 맞아 연주되는 칸타타 "열렸다! 하늘 문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찬양으로 울려 퍼지기를 바라며 서울교회의 앞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기쁜 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환히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가시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목회자 신학세미나 중점을 감사하며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하여**
서문수 목사
(한국교회갱신연구원 40학기 수료생 대표)

바른 신학과 영성으로 한국교회 갱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신학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셔서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과 영성 재충전의 기회를 주신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님, 그리고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김재진 부원장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교의 강의와 연구 등 시간이 바쁜 중에도 목회자신학세미나에 나오셔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열강을 하여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섬김의 본을 몸소 저희에게 실천하여 보여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 직장, 사업 등의 일로 바쁜 가운데 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오셔서 강의안 자료 제공과 접수 안내,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여 주시고 방송과 환경미화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위하여 애써주신 서울교회 섬김위원 여러분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봉사와 목사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 졸업생들은 더욱 더 바른 신학과 영성으로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하며 답사에 가름합니다.

사명자의 기도

영원한 그의 사랑

정윤순 집사(2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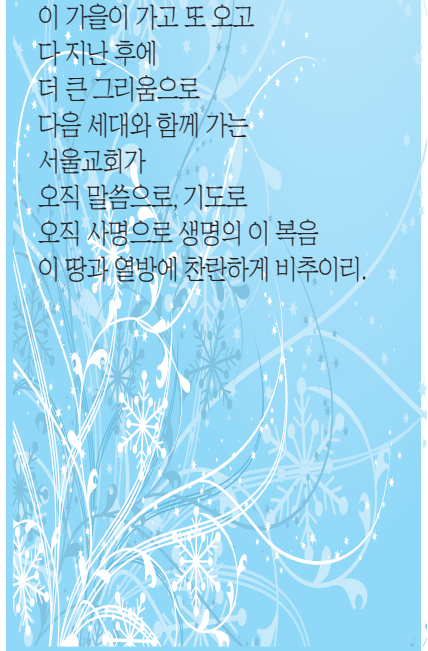
영원한 그의 사랑이
작사랑으로 붉게 타오르다 못해
소리 없이 내려와
눈물로
잠자는 사명자의 잠을 깨우네

교만과 자만의 쌓란 속에서
비대해진 게으름이
간절함으로 나아갈
사명자의 뒤꿈치를 잡네

울어도
가슴을 치며 발을 굴러보아도
쉬 놓지 않고
"속지 말아라 딸아"하시던
그 때의 그 황홀함

그의 죽으심과 함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갯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예수님처럼
번제로 드리는 사명자.

이 가을이 가고 또 오고
다 지난 후에
더 큰 그리움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서울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오직 사명으로 생명의 이 복음
이 땅과 열방에 찬란하게 비추이리.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앞으로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박영석 성도(4교구)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따라 교회 다닐 때 목사님 말씀 중에 “어려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언젠가 꼭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온다”는 말씀대로 3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저는 마침내 서울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 죽을 고비를 네 번이나 넘겼는데, 첫 번째가 일곱 살 때 한강물에 빠져서 떠 내려가는 것을 지나가던 어느 청년에 의해 건져져서 살았고, 두 번째는 30대에 사업 때문에 지방으로 바쁘게 다닐 때에, 대전 근방 빗길 고속도로에서 4중 충돌이었지만 또 다시 살아났고, 세 번째는 40대 초반에 제가 평소 오토바이 투어를 무척이나 즐겨하는데 분당 넓은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마주오던 쏘나타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10미터나 나가 떨어져 뒀글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도 시간 차이로 살아나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년 전 아주 주웠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갑자

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응급실을 거쳐 바로 수술을 하여 결국 폐 한쪽을 못쓰게 되었고, 한 달 만에 퇴원을 하여 그간 줄곧 해오던 산행을 할만큼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회사 문을 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6월 6일 현충일날 흥해 작전 때부터 새벽이면 3시에 일어나 서울교회에서 새벽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박노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깊이 감동이 되어 7월말 정식으로 새가족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8주 교육을 빠짐없이 개근하게 된 것은 그 동안 백승갑 집사님과 이은옥 권사님의 친절하고 따뜻한 안내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길게만 느껴지는 터널 같은 힘든 상황이지만, 이는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잘못 살아온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함이며 저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생각하며 요한복음 14:1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새기며 지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명자대회 기간에 기도하던 중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합당한 일이 뭔가를 알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 바자 때 8층 식당 안에서 땀 흘리며 이를 동안 봉사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게 무엇보다 뿌듯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하루하루 변해가는 제가 스스로 놀랄기도 하고 월요일에는 저녁에 선교대학에 등록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교를 배우고 사명감까지 느끼며 그동안 몇 달 동안 주일에 전혀 산에 못가니까 회원들과 친구들이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냐며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좋은 일이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궁금증 유발을 하고 있으며, 제 주변 사람들부터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주일날 교회 간다고 산에 못나오는 회원들에게 막 뭐라고 핀잔을 주곤 했던 저였는데, 이렇게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함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드리는 삶이 되도록 부족하지만 믿음 안에서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동정

- 수상: 이재훈 선교사(마다가스카르) KOIKA 이태석 신부상 (11월 11일 SBS "아프리카에 희망을"에 마다가스카르 오지 의료선교사역 방영됨)
- 수상: 이동만 집사(2교구) 지식경제부 장관상
- 특남: 12교구 최지옥 집사 이정현 성도 (최광성 집사 이정연 권사 장남 가정)

- 주간식당봉사: 이삭선교회(11.20) 도르가전도회(11.27)
- 금주의 식사: 김태기 장로, 윤문자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교육부서, 찬양인도 · 반주 봉사자 모집

- 사무국으로 신청 -

2012년 교회학교의 어린이 부서 및 장년부 등 교 육부서에서 찬양인도 및 피아노 반주를 할 봉사자를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 바란다. 찾는다.

2011 하반기 화요 정오음악회- 11월 22일(화) 김현정 김윤지 듀오 연주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B.M.) 및 동대학원 (M.M.) 졸업
프랑스 리옹 국립고등음악원(CNSMD de Lyon) 수페리어과정 졸업 (DNES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버토리 교환학생으로 수학
제3회 독일 에어푸르트 국제오르간 콩쿠르 2등
現. 연세대, 한예종, 장신대, 침신대, 백석예술대 출강,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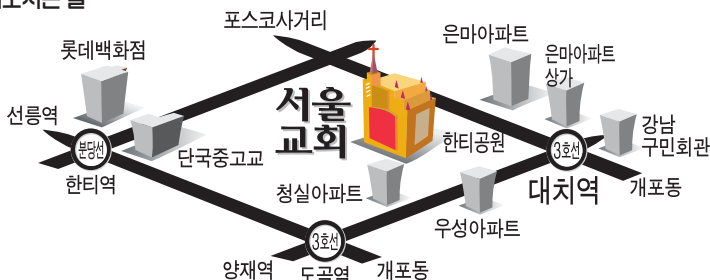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전문사 졸업
제4회 장천-클라이스오르간콩쿨 Finalist
Europäische Orgelakademie Leipzig 수료 및 연주
現. 인천남구청소년합창단 반주자,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명자 대회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 시편 말씀을 통해 주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2. 교회설립 20주년과 추수 감사절, 그리고 위임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감사와 결집이 주께 드러지도록
3. 전국장로회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신 오정수 장로님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이뤄질 수 있도록